

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研究

—高句麗千佛像 造成과 관련하여—

文 明 大

一、머리말

平南 平原郡 德山面 元五里寺址에서 출토된 많은 양의 塑造 佛·菩薩 像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미 우리나라 彫刻史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 작품이 우선 몇 안되는 六세기의 恢귀한 高句麗 彫刻을 대표할만한 우수한 작품이고, 그것도 확실한 學術的 發掘에 의해서 출토된 분명한 高句麗 作品이며, 또한 당대에 크게 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塑造 작품이라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古代彫刻史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수한 작품이지만 양식편년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먼저 塑佛像의 出土狀況과 현재의 現狀 및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두째로 이 불상들의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나라 고대 조각사에서의 編年을 시도하고자 하며, 세째로 이 조각이 차지하고 있는 彫刻史的 的의를 樣式 比較史的인 관점은 물론 社會思想史的 觀點에서도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이 元五里寺址 塑佛像들을 완전히 밝힌 것이 아니며, 특히 發掘狀況과 出土佛·菩薩像의 狀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여러가지 잘못을 저지른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점은 많은 叱正을 받아 다시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二、元五里寺址 塑佛像의 現狀과 形式的 特徵

이 불상이 발굴된 것은 一九三二년 평양 고물상에 나타난 塑佛을 小場恒吉 研究員이 구입하고 출토지를 짐요하게 추적한 결과 平南 平原郡 德山面 元五里의 寺址라는 것을 秋藤田 研究員이 一九三五년에야 밝혀 내었다고 한다.

이 寺址의 발굴은 一九三七년 五月 一二일에서 二九일까지 十七일간 주요부분에만 발굴이 시행되었다고 報告者 小泉顯夫는 기록하고 있다①. 寺址는 萬德山이라는 낮은 野山(二四八m) 西南기슭의 경사면을 二단으로 정리하여 형성한 것이다. 上段의 중심과 서쪽은 고려시대의 遺構이고, 동쪽 建物址는 高句麗의 遺構로 밝혀져 일단 이 절은 고려려시대에 창건되어 고려려의 멸망과 함께 없어졌다가 고려시대에 다시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塑造像들은 바로 이 동쪽 고구려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때 佛坐像(頭·身部合計) 二〇四점(片)과 菩薩立像 一〇八점(片)이 출토되었다 한다.

이 보다 앞서 一九三一년에 평양 土城里에서 二종류의 佛像范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② 이 가운데 한 范과 元五里佛坐像이 꼭 일치하기 때문에 이 范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報告者는 추정하고 있다③.

아마 이 조각틀(范)에다 고운 흙을 넣어 불상의 전반면(前半面)을 만든 후에 다시 뒷면을 마무리하는 技法을 써서 형태를 완성시킨 후 이들 을 가마에 넣어 구워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은 고구려 瓦當을 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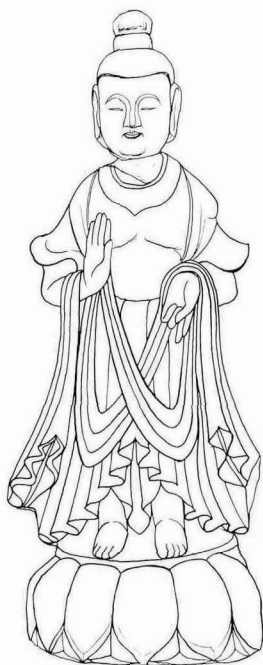


圖 2. 元五里 塑造菩薩立像實測圖



圖 1. 元五里 塑佛坐像實測圖



圖 4. 元五里 塑造菩薩立像



圖 3. 元五里 塑佛坐像

技法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彩色顏料를 써서 불상을 채색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발굴 당시 일부의 불상에 白・朱色 등이 남아 있었던 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채색수법은 聖住寺 塑佛像 등에서도 쓰이던 수법이어서 塑佛像들에는 거의 채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④.

이 寺址에서 발굴된 塑佛像들은 佛坐像 二〇四점(片)과 菩薩立像 一部分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실제로 불상 수는 좀 줄어들 것이다. 하여튼 지금까지 출토된 모든 불·보살들은 자기 한 틀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상 一點과 보살상 一點만 선정해서 논의한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佛坐像 一點과 菩薩立像 一點을 선정해서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완전하게 原形을 갖고 있는 예는 앞에 든 報告書 圖六四의 佛坐像일 것이다⑥. 여기서 보면 대좌나 佛身을 한 틀로 조성한 것으로 무릎을 덮어 내린 옷자락(裳懸) 때문에 대좌와 불상을 확연히 구분지을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上體가 짧고, 이 짧은 상체는 두 팔뚝을 넓게 구부러 배 부근에서 손을 서로 짝지킨 이른바 中 국식 禪定印을 짓게 하므로써 跏趺坐한 무릎 너비와 비슷하게 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선정인을 한 손모양과 아울러 꼭섬금동불좌상이나 新里金銅佛像과는 다른 제통의 자세라고 하겠다. 이것은 軍守里남석불좌상의 자세와 비견되지만 군수리 불상의 무릎이 넓고 좁 음추린 듯한 점과는 다른 것이며, 오히려 安岳三號墳이나 雙楹塚의 墓主人公⑦의 자세와 흡사한 것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불상의 머리칼은 素髮 즉, 민머리카락이다. 이런 소발은 높고 큼직한 肉髻와 함께 景四年銘 내지 癸未銘金銅佛立像들의 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처음에는 인도나 중국의 예에서 보이다시피 물결 머리칼(波狀髮)을 그렸는지 알 수 없다. 얼굴은 타원형의 가름한 모습인데 半開한 눈, 예쁜 코, 미소를 머금은 입과 함께 온화하고 고상한 인상을 묘사하고

있어서 귀족 취향의 고귀한 佛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얼굴은 힘이 넘치는 듯한 延嘉七年銘 金銅三尊佛像의 팽창된 얼굴과도 다른 세련된 고상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독특한 佛顏을 성공적으로 창작해 낸 것이다. 따라서 연가 七년명 불상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다.

어깨는 좁고 가슴은 밋밋하여 팽팽한 긴장감이나 강건한 기풍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시 얼굴의 표정과 함께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점은 두 손을 배에 대고 짝지킨 禪定印의 印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이 불상의 전체적인 造形性은 寂靜의 美를 具現하는데 최대의 力點을 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佛衣는 通肩인데 목 주위로 넘어가는 옷깃은 도드라기의 빼기형 衣文이고, 상체에 흐르는 옷주름은 계단식의 완만한 U形 옷주름이며 소매 역시 동일한 것이다. 이런 佛衣形式은 인도의 간다라풍이 남아 있는 着衣法으로 꼭섬금동불상 외에 고구려 불상의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四세기 내지 五세기 후반까지 유행하던 佛衣이지만 이 불상은 당시의 중국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이 점은 무릎을 덮어 내린 옷자락의 독특한 주름 형식에서도 잘 보이고 있는데 중국 龍門佛像 이래 나타나던 裳懸座와 차이나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⑧.

대좌는 옷자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면 큼직한 연꽃 다섯 잎이 내려다보게 한 覆蓮을 새긴 연꽃대좌이다. 이 연꽃은 끝이 날카롭고 소박한 것으로 延嘉七年銘 불상대좌의 연꽃 만큼 좁고 날카롭지는 않다라도 그런대로 소박한 힘이 넘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六세기 전반기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백제 武寧王陵의 王妃冠飾에서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구려의 六세기 전반기 작품인 연가명 불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불상의 특징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菩薩立像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佛坐像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고상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보살의 얼굴에서 명쾌하게 지적할 수 있으니 타원형의 가름한 얼굴, 은근한 미소, 부드러운 부피감 등은 고상하고 조용한 인상을 적절하게 나타낸 요체가 아닐 수 없다.

머리는 트레머리 모양으로 틀어올려 묶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묶은 끈(리본)은 보이지 않아서 國博 金銅菩薩立像⁹과는 다르지만, 하여튼 특이한 형태임은 분명하다.

신체는 옷 속에 감싸여 量感은 분명치 않지만 本尊처럼 삼각형적인 上體의 부드러운 굴곡이며, 곡선적인 처리 등은 소녀와 같은 차명하는 느낌을 적절하게 포착한 것 같다.

이 보살의 손이나 발은 당시의 다른 상들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施無畏・與願印의 손모양은 왼손인 與願印이 새끼와 무명지를 구분된 당대의 우리 나라 불상 手印의 通式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동일한 한 점이다.

이 보살상의 天衣는 어깨에 걸친 새깃같은 옷자락, ×字 衣紋, 裳衣 주름의 장식적인 수법 등으로 이 보살상의 조형미와 색갈 조화되고 있다. 특히 ×字 衣紋은 두 손목을 걸쳐 좌우로 내려 발목 께에서 주름을 잡았는데 이 주름(襠襞)은 裳衣 끝단이 짓고 있는 주름과 함께 무척 장식적이면서 우아한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字 衣紋이나 옷주름의 장식성 등은 이 당시의 다른 보살상 등과 다른 着衣法인데 앞서 國博 金銅菩薩立像이나 軍守里菩薩立像 등에 보이는 새깃같은 옷자락이 없는 점과 함께 이 보살상이 좀 다른 양식인 것을 실감시켜 준다. 물론 옷주름의 장식성은 普願寺金銅佛立像의 것과 비견되지만 이런 특징 있는 묘사는 이 보살상의 시대적인 특징을 응변하는 점이기도 한 것이다.

臺座는 佛坐像과 마찬가지로 소박한 單瓣의 연꽃무늬인데 대좌 밑바

크 기(法量)

		全高	身高	頭高	顔高×幅	臺高
1	佛坐像	19.5cm	15cm	6cm	3.3×2.8cm	4.5cm
2	菩薩立像	17.5cm	14.9cm	4cm	2×1.8cm	2.6cm

닥이 비스듬하게 처리되었고 중심에 1cm 크기의 구멍이 있으므로 이들 불·보살들은 비스듬한 바다에 정연하게 꽂혀 있던 것이 분명하다.

三、元五里寺址 塑佛像의 樣式的 編年

앞장에서 살펴 보았다시피 이 불·보살상의 양식적 편년은 우리나라 彫刻作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국이나 인도 작품과 比較史的 觀點에서 구명할 수밖에 없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불·보살상과 相對的인 編年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 불·보살상의 편년을 분명히 논의한 학자(國內)는 金元龍 教授이다. 그는

「이 얼굴은 이미 辛卯佛같은 高句麗化된 것이며 분명히 六世紀中葉의 北齊式佛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臺座의 蓮瓣은 延嘉佛이나 百濟佛과 통하고 있으며, 역시 六世紀中葉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年代는 하여튼 古墳壁畫의 人物에서 보는 듯한 고구려 특유의 寂寞感과 少年같은 童心을 느끼게 하는 佛像이다¹⁰.」

고 하면서 六세기 후반경으로 분명히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이 六세기 후반설은 통설이 되었으니 金理那¹¹, 松原三郎¹²氏 등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글쓴이도 六세기 후기로 추정하면서 어찌면 약간 앞서 五五〇년 경을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편적이 있다¹³.

그런데 金元龍 교수는 최근 그의 著書 「韓國古美術의 理解」에서 이를 더욱 수정해서 六세기 중엽에 가까운 전반기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나는 나의 前著 《韓國美術史》(一九六八)에서 이 泥佛들의 얼굴이 齊



圖 6. 元五里 塑佛像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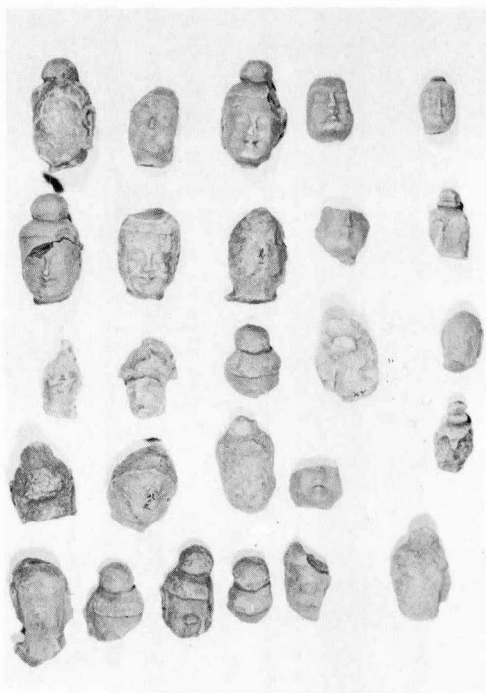


圖 5. 元五里 塑佛菩薩像頭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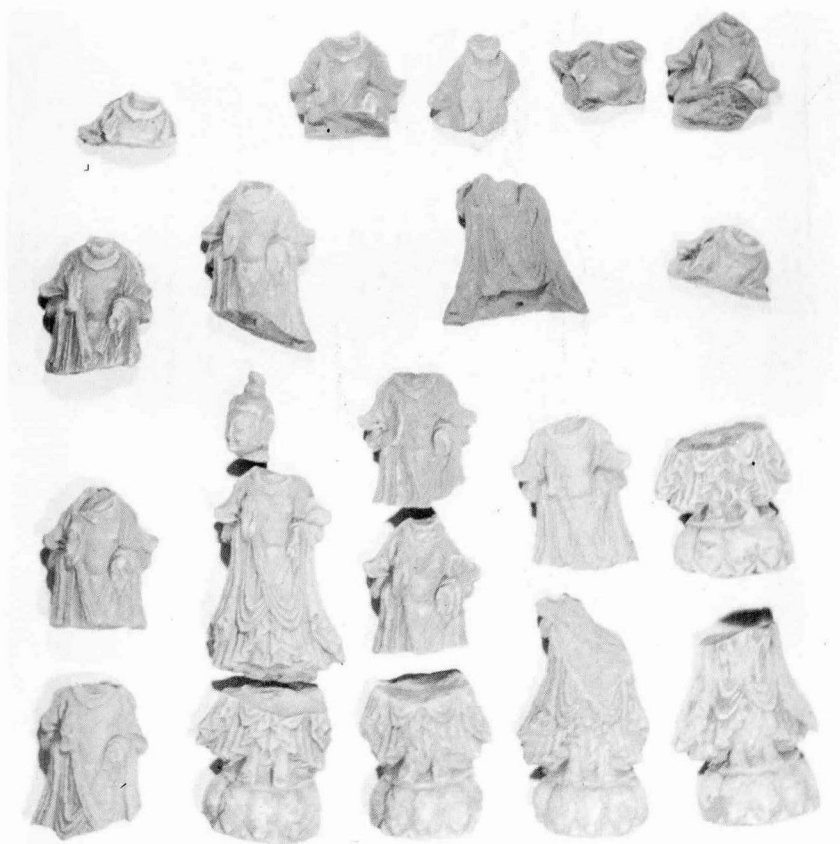


圖 7. 元五里 菩薩像片

周樣式的 입김을 입은 것 같다 해서 그 년대는 六세기 후반경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역시齊, 周樣式 이전이며, 따라서 六세기 중엽에 가까운 前半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고 앞서의 설을 훨씬 앞당기면서 년대도 분명히 六세기 중엽에 가까운 前半이라 언급하였으니 四/四분기로 나누다면 六세기 二/四분기의 작품이라고 못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그가 항상 주장하고 있듯이 조각사를 四/四분기로 나누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不知不識間에 시인한 셈이며¹⁴⁾, 이렇게 되면 이 불·보살상에 대한 編年設定이 최대 七五년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서 앞서의 견해는 過不及의 논의가 되는 셈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막연한 六世紀後半說보다는 실사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좀더 분명히 책임있는 編年設定을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글쓴이도 김교수의 편년에 우선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五五〇년을 전후한 시기로 신중히 編年設定을 시도한 적이 있다시피 이 경우에는 이것이 六세기의 二/四분기로 못박는 것보다 오히려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중국이나 인도 불상과 여러면에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 불좌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Marilyn Rie가 中國 五세기 第二形 왜기형 제단식주름으로 분류한 河北 출토의 靑銅佛坐像이다¹⁵⁾.

목 주위의 돌출 옷깃, 팔상단부의 거친 왜기형 옷주름, 강건하고 작달막한 上體 등은 물론 크고 높다란 肉髻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유형의 불·보살들은 목깃과 체구 등에서 서로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불상의 원형이 Butkara I 유적지 출토 불상인데¹⁶⁾ 좀더 부드러워진 체구나 목의 옷깃 등은 오히려 이들 상이 중국상을 보다 元五里佛에 더 접근되고 있다.

이들 불상과 함께 Marilyn Rie가 제3형 A, 제단식 주름으로 분

류한 河北靑銅佛坐像 등도 원오리 불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 같다. 높은 육계, 寂靜한 얼굴, 굴푼 어깨, 짧은 上體, 禪定印의 자세, 제단식 옷주름, 팔로 내려진 옷자락과 무릎 사이의 옷자락 주름 등은 원오리 불상과 친연성이 강한 것이다. 이런 유형으로 東京藝大藏 金銅佛坐像(五胡十六國)이 있는데 체구나 제단식 주름은 이 불상이 보다 근사한 면이 많은 것 같다¹⁷⁾.

이 중국 불상들의 모형은 역시 Butkara 出土 石佛坐像이나 Mathura 出土 沙岩佛坐像(Lucknow 博物館藏) 등인데 특히 삼각형적인 상체라는 제단식주름 무릎 좌우를 덮어내린 옷자락과 무릎 사이의 옷주름 표현 등은 서로간의 근사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西域 내지印度佛像의 직·간접적인 영향도 일단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원오리 불좌상은 앞에서 예로 든 인도 내지 중국의 四세기 말 五세기 초의 불좌상들에게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河北 출토 청동불좌상이나 東京藝大 金銅佛坐像이 소조로 조성되고 목의 옷깃이 부타카라상 내지 중국 청동불좌상의 돌출 목깃을 좀더 대좌쪽으로 내려 상현좌 수법으로 만든다면 원오리 불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양식의 불상이 출현하자면 중국의 경우는 六세기 초 경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물론 옷주름이나 着衣法에 인도식이 꽤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원오리 불상은 六세기의 중국에서는 사라져버린 五세기 초기까지의 불좌상양식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중국의 北魏(六세기 초) 및 東西魏樣式을 받아들인 결과, 출현한 불상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東魏(五三五—五五〇 A.D.) 天平四年造 釋迦石像(五三七¹⁸⁾) 본존의 육계, 일괄, 上體 등은 물론 光背 化佛坐像 二구같은 영향을 받는다 면 아마도 원오리 불상같은 양식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化佛坐像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데 中國式 佛衣着衣法과 다리 사이의 옷자락주름 아래로 감추어진 禪定印만 제외한다면 원오리불상과 대좌 覆蓮의 날카로운 單瓣이라든가 다리 사이의 옷자락주름, 얼굴과 上體 등에서 근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와 함께 원오리불상에서 北魏 二期의 불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좌의 연꽃을 약간 덮어 내린 옷자락의 裳懸座의 手法이다. 이 경우 완전한 상현좌는 아니지만 다리 사이로 내려진 옷자락은 주름을 이루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져 대좌 상단부를 덮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裳懸座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현좌의 출현은 北魏 二期인 龍門樣式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므로 六세기 전반기의 중국불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⁰⁾.

이러한 중국 五세기 말 내지 六세기 초 불상양식의 특징은 원오리보살 입상에서 보다 더 명쾌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보살입상은 신체나 얼굴의 귀족적 기풍, X자의 문과 장식적 옷주름 등의 특징은 중국 북위 龍門樣式에서 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²¹⁾. 가령 龍門 古陽洞 北壁 永平二年銘(A. D. 五〇九) 彌勒像 내지 賓陽中洞 北·南面보살상들의 특징과 매우 근사한 것이며²²⁾, 부분적으로 白玉彌勒像의 얼굴, 목거리 X字의 문, 足座 연화문의 특징 등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X자의 문이나 天衣의 장식성 등은 가령 雲岡六洞 三尊佛像이나 龍門石窟像처럼 五세기 말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六세기 초부터라는 말이다. 이 점은 앞의 龍門石窟 菩薩像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 丸彫像으로 복위 石灰岩三尊佛像²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오리 보살상에는 이러한 복위양식과 함께 東魏樣式도 엿보이고 있다. 가령 東魏 석회암 삼존불좌상 협시상에서 보다시피²⁴⁾ 머리, 얼굴, 체구, X자의 문 등에서 원오리 불상양식과 근사한 면이 다분히 있는 것은 동위양식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六세기 초 복위양식을 받아들인 고구려 불상이 자체적으로 변천

해서 원오리 불상양식을 만들어 내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문화교류로 보아 동위양식이 엿보인다면 그 영향도 다소 받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만약 동위(五三四—五五〇) 내지 나아가 서위(五三五—五五六)양식을 받았다면 원오리 불상은 五五〇년경 전후 이른바 四/四分기로는 六세기의 二/四分기 말에서 三/四分기 초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 아닐까 한다.

당시 고구려와 중국 사이의 활발한 접촉으로 보아 새로운 중국 불상양식을 받아들여 유행시키는 데는 의외로 빠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영향관계는 上下限線을 二〇여년, 이른바 一세기의 一/四分기 정도 두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²⁵⁾.

따라서 원오리 불·보살상은 중국의 불·보살상과 비교한다면 인도 간다라식 불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五세기 전반기 불상양식의 전통이 꽤 많이 남아있는 불상에 六세기 전반기의 복위 및 동위 불상양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시야를 좁혀 우리나라 불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불상 편년을 세워보아야 할 단계이다.

우선 불좌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와 유사한 자세를 취한 똑 똑 출토 금동불좌상이 있는데 이 불상은 원오리불상보다 얼굴이 강건하고 신체가 삼각형이 아니며, 특히 성긴 계단식 주름이 아닌 밀집쇄기형 계단식주름인 점이 다르며 다리 사이의 상현좌적 주름이 표현되지 않은 점 등 두 불상은 이처럼 다른 점이 눈에 띄게 많아서 다소의년대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입상이지만 延嘉銘佛의 裳衣주름과 원오리불상의 다리 사이 상현좌적 주름의 근사성, 단판 연화문의 강한 친연성 등에서 두 불상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오리불상은 특히 얼굴이 나 어깨, 옷자락, 연화문 등에서 역동하는 힘이 연가명불상 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므로 연가명불 보다는 약간 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자세인 軍守里 蠟石佛坐像은 여러 점에서 元五里불상과 비교



圖 8. 元五里 佛菩薩像片



圖 9. 元五里 佛菩薩一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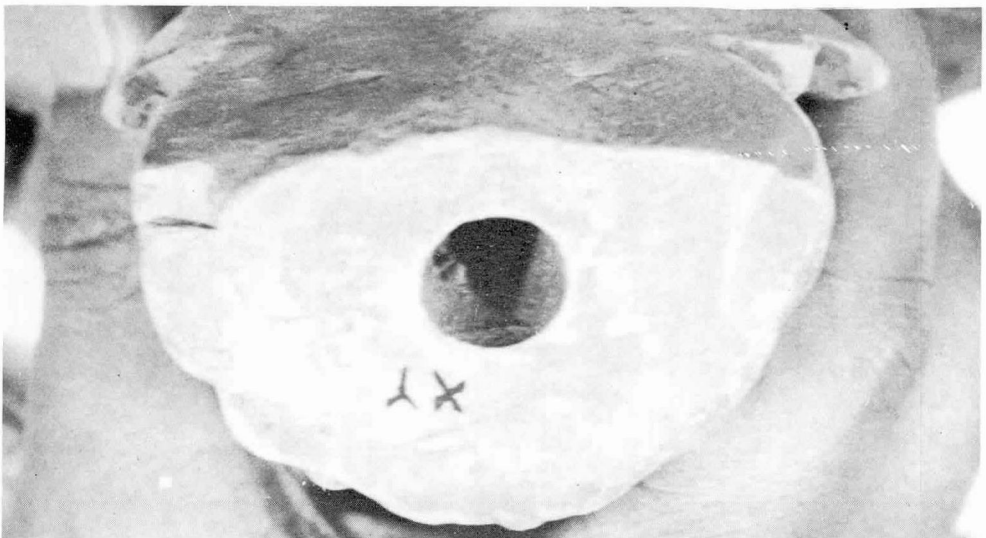


圖 10. 臺坐下部孔

된다. 즉 선정인의 자세, 삼각형적인 上體, 소매자락이 무릎을 덮는 수법, U자형 돌출 목깃, 심긴 U자형 의문 등은 상당한 친근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품만한 얼굴, 線刻의인 옷주름, 본격적인 상현좌같은 점은 元五里불상과 다르며, 이런 점은 중국 北齊·周의 양식이 다소 영한 것이므로 원오리 불상보다는 후대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같은 고구려 작품으로 생각되는 半拉城 出土 二佛並坐像⁽²⁵⁾과는 목계, 얼굴, 체구 등이 비슷한 점에서 크게 주목되지만 이 불상은 시대가 이보다 다소 늦은 것 같다.

원오리 보살상과 매우 근사한 보살상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박 금동보살입상의 경우 새깃 같은 형식화된 옷깃이나 평판적인 체구, 도식적 옷주름 등을 없앤다면 유쾌한 얼굴, 목걸이, X자의 문 등은 서로 비슷한 점인데 이 금동상은 원오리 불상보다 좀 더 형식화된 면이 많아서 양식상 원오리 불상이 좀 더 앞선 것 같다. 더구나 이와 유사한 軍守里 금동보살입상에서 이 점은 보다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품만한 얼굴, 지느러미같은 옷깃, 裳衣의 장식적 옷주름이 없는 점 등은 원오리 불상 보다 뒤진 보살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원오리 불·보살상은 六세기 전기(二/四분기)의 불상들과 유사한 점이 많고 六세기 후기(三/四분기)의 불·보살상보다 년대가 앞서기 때문에 제작시키는 대개 六세기 二/四분기 말에서 三/四分기 초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四、元五里寺址 塑佛像의 意義

지금까지 발견된 수백 軀의 불·보살상은 각기 한 틀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형식의 불상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불상들이 수백 구가 同一寺址의 한 建物址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性格을 갖는 불상들일까.

이것은 千佛로 해석할 수 밖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싶다⁽²⁶⁾. 물론 보살들이 천불과 함께 어떻게 봉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여튼 이 불상이 千佛像들이 틀림없다면 당대 불교 신앙의 한 성격 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 같다.

비슷한 시기이거나 약간 앞선 시대의 작품인 延嘉七年銘 金銅佛立像 (A.D. 五三九년경)은 뚜렷한 銘文을 가진 千佛像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이 불상은

「延嘉七年이 되는 해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 東寺의 주지 敬과 제자 演 등 사제 四〇인과 함께 현재 一천불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유포시키 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그 二九번째 부처님이다.」⁽²⁷⁾

고한 銘文에서 보다시피 現在千佛을 널리 유포시킬 목적으로 계속 만 들었던 千佛 가운데 二九번째 불상인데 이것이 당시 伽鄣 내지 新羅 지역이었던 경남 宜寧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널리 외국까지 유포시켰 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당시 千佛信仰은 상당히 널리 믿어졌 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千佛信仰이 정확히 언제부터 유행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만 중국의 경우 雲岡石窟⁽²⁸⁾이나 龍門石窟⁽²⁹⁾에는 다수의 千佛像들이 조 각되고 있고, 용문석굴에는 五二五년에 賢劫千佛像이 만들어진 銘文까지 보이고 있어서⁽³⁰⁾ 늦어도 北魏 때 부터는 유행된 것이 확실한 것이다⁽³¹⁾.

이러한 千佛信仰과 그 造像이 우리나라에 受容된 것은 적어도 五〇〇년 전후 늦어도 6세기 1/4분기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 元五里佛像은 延嘉銘佛과 함께 천불상의 수용과정을 알려주는 확실한 예가 되는 셈이다. 이후 半拉城千佛像 등 다량의 천불상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이 千佛像은 百濟나 新羅에서도 많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扶餘 定林寺에서 발견된 다량의 塑造像들은 역시 千佛像일 것으로 생각되며⁽³²⁾, 忠南 燕岐佛像 가운데 鳥致院邑 瑞光庵 千佛碑像은 비록



圖 12. 平山寺石坐像



圖 11. 平山寺金銅佛坐像(國立博物館)



圖 14. 軍守里石佛坐像



圖 13. 延嘉 7 年銘佛立像

七세기 후반 작품이지만 양식상 앞 시대에 속하므로 삼국시대에 千佛像들이 조성된 사실을 잘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³³⁾.

통일신라 때의 千佛像 작품으로 忠南 聖住寺 塑造佛像들이 있다시피 당시에도 꽤 많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⁴⁾.

千佛像은 過去千佛, 現在千佛, 未來千佛 등 三千佛을 말하고 있는데 삼천불을 대표하는 것이 現在千佛이기 때문에 千佛이라 할 때는 흔히 現在千佛(賢劫千佛)을 말하고 있다. 어쨌든 千佛信仰은 大乘佛敎思想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깨치면 누구라도 成佛할 수 있다는 대승사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도 무수한 佛이 있고 공간적으로도 무수한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무수한 부처님을 시간적으로 파악할 때 과거·현재·미래의 千佛로 상징하게 되며, 이러한 부처님은 그 속성이 하나의 佛로 歸一될 수 있으므로 결국 一即多·多即一의 사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合一 또는 統一의 원리는 당시 주위의 諸民族과 모든 국가를 정복하여 大帝國을 건설하려던 고구려에게는 안성맞춤의 불교사상이었을 것이고, 불교의 유포를 희망하던 당대의 佛敎敎壇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실례가 바로 延嘉銘佛과 함께 元五里佛像인 것이다.

이 원오리 불상은 바로 塑造佛이다. 塑造佛은 三國時代에서는 가장 많이 애용된 불상 종류(材料上)인데 고구려 작품으로 그 대표적 불상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多量の 불상을 한꺼번에 조성하고자 할 때는 경제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이런 塑造佛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아니었는가 싶다. 따라서 千佛像을 한 寺院에서 봉안하고자 할 때는 바로 塑造, 그것도 한 틀로 만들어 구어내는 테라코타 기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塑造佛造成의 實例를 이 불상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불상은 우리나라 古代彫刻史 가운데 가장 먼저 佛像이 受容되어 발전된 高句麗 彫刻品 가운데 六세기 二/四분기 내지 三/四분기

기의 불상 양식을 알려 주는 좋은 예인 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 五세기 전기의 양식적 특징이 남아 있으면서도 六세기 전기 양식(北魏—東魏)이 가미되었지만, 얼굴이나 신체, 臺座나 着衣法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적인 특징이 보이고 있는 점에서 당시 고구려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불상의 예일 것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元五里塑造佛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古代彫刻과의 비교는 치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 점 글쓴이로서는 무척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年代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불상이 현재로서는 한 점도 없고, 그나마 이 불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수가 불과 몇 예에 지나지 않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밝혀낸 몇 가지 사실은, 이 불상이 高句麗彫刻樣式編年상 六세기의 二/四분기 말에서 三/四分기 초 즉 五五〇년경(陽原王時代 前後)³⁵⁾ 전후 시기에 조성된 작품이며, 또한 이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조성된 千佛들로서 延嘉銘佛像과 함께 당시의 신앙경향과 불상조성의 기호를 알려 주는 좋은 예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지적이 韓國古代彫刻史 특히 고구려조각사를 연구하는데 다소의 기여가 될 수 있다면 다행하겠으며,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모아질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바이다.



圖 16. 普願寺金銅佛立像



圖 15. 金銅佛立像(國博所藏)

(註)

① 小泉顯夫 「泥佛出土地 元五里廢寺址의 調査」 昭和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一九三七、pp. 六三—六四

② 佛像范은 여기서 두 가지가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큰 것으로 무릎 부분만 남아 있고(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博物館陳列品圖鑒 第九輯 참조)、다른 하나가 바로 이 范인 것이다(小泉顯夫 「앞글」 P. 七二 참조)

③ 小泉顯夫 「앞글」 P. 七二

④ 文明大 「聖住寺 三千佛殿址 第一次發掘」 佛敎美術 一九七四

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九〇(八四점과 진열품) 여 점이 收藏된 것은 필자가 확인했지만 三—二점이 완전히 수장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⑥ 머리 부분이 신부와 일치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접합 상태로 보아서는 거의 同一像으로 생각된다.

⑦ 金元龍 「壁畫」 韓國美術全集 四、同和出版公社、一九七四、圖二、圖四三

⑧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⑨ 黃壽永 「佛像」 韓國美術全集 五、一九七三、同和出版公社、圖五

⑩ 金元龍 「韓國美術史」 汎文社、一九六八、P. 七四

⑪ 金理那씨는 一九七四년에 金載元 박사와 함께 펴낸 『韓國美術』 日文、英文 版에서 六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⑫ 松原三郎 「三國時代彫刻樣式의 時代區分에 就いて」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一九六九、P. 一〇〇—六

⑬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一九八〇、P. 一一七

⑭ 金元龍 교수는 「歷史學報」 第八四輯 〈回顧와 展望〉 美術史總說(P. 二二—) 과 韓國佛敎彫刻研究小史(一九一〇—一九八〇) 『美術資料』 二八號 (P. 二六) 에서

「서양에서는 풍부한 자료와 기년 예 등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資料의 부족과 研究의 未備로 그렇게 二五년씩 잘라서 年代決定을 하는 것은 尙早할 일이 못된다」

고강한 반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글쓴이는 모든 불상을 二五년씩 잘라서 언급하지도 않으며, 대개 될 수 있는 한 근사하게 하고자 했고, 특히 년대가 애매한 것, 가령 一세기의 증명은 二/四分기 및 三/四分기 정도라는

말과 표현하기도 하였으므로 결코 金元龍 교수의 견해와 차이나는 것은 아니기다.

⑮ Marylin M. Rhie 「Some Aspects of the Relation of 5th-Century Chinese Buddha Images with Sculpture form N. India, Pakista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Eastis West New Series Vol. 26, No. S. 3-4, 1976, pp. 439~461.* 및 松原三郎 「中國佛教樣式の南北」 *美術研究* 二九六, 一九七四 참조.

⑯ 註① 참조.

⑰ 阪井卓 「石佛」、松原三郎 「金銅佛」 *六朝の美術*, 平凡社一九七六, 및 圖二六三, 二六四, 二六五 참조.

⑱ 大村西崖 「中國美術史 彫塑篇 附圖」 *國書刊行會*, 一九八〇, 圖 五五九

⑲ 松原三郎은 앞 논문에서 구체적인 불상 예는 들지 않으면서 *東魏樣式의 영향* 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⑳ 小杉一雄 「裳懸座考」 *佛教藝術* 五號, P. P. 四一—五三, 및 「裳懸座(台座)」 「中國佛教美術史의 研究」一九八〇, P. P. 一五一—一七二

㉑ 長廣敏雄은 「佛像의 服制」 (*大同藝術論*)에서 불상에 北魏 皇帝의 복장을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적 옷주름이 있는 새로운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南朝의 불상양식을 받아들여 제작되었다는 설이 더 무거워 있다 (A. Soper 「South Chinese Influence on the Buddhist Art of six Dynasty Period」).

㉒ 水野清一, 長廣敏雄 「龍門石窟의 研究」 *東方文化研究所*, 一九四一, P. P. 二一七, P. P. 八七—一〇九, 圖 九, 一〇 및 大村西崖 「中國美術史 彫塑篇 附圖」 圖 五〇八, 五〇九

㉓ 「六朝美術」 圖 二四〇

㉔ 「六朝美術」 圖 二四

㉕ 三上次男은 이들 불상을 고구려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半拉城出土의 二佛並坐像とその 歷史的意義) *朝鮮學報* 四九, 一九六八).

㉖ 「朝鮮と建築」 (二〇輯 六號, 一九三二, 六) 消息欄에

『江西古墳 模寫로 來壤中인 東京美術學校 講師는 平壤博物館 앞 古物商에서 高句麗時代 佛像을 發見하였다. 이 불상은 千佛佛의 一種이 아닌가 보이

며, 法隆寺 佛像과 닮은 다시 얻기 어려운 珍品이라 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불상 중에 最高이며 一三〇〇年前 것으로 보인다』고 한 記事는 앞서의 古蹟調査報告書와 연관시켜 보면 元五里 佛像의 발견에 관한 기사가 틀림없이 「다시 발견자들」이 千佛像으로 본 것 같다.

한편 黃壽永 교수는 앞 논문 「高句麗 金銅佛像의 新例 二座」 註三四에서 이 글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이 불상의 公表를 기대하는 바이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元五里 佛像과의 관련은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千佛像의 존재를 확인한 점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⑳ 延嘉七年歲乙未高麗樂浪

東寺主敬第子僧演師徒册人共

造賢劫千佛流布第二十九回現歲

佛比丘擣額所供養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P. P. 및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一九八〇, P. P. 一六五—一六六

㉑ 長廣敏雄 「雲岡石窟」 *世界文化社*, 一九七六

㉒ 水野清一, 長廣敏雄 「龍門石窟의 研究」 *東方文化研究所*, 一九四一, 참조.

㉓ 銘文內容은 「比丘尼道暢賢劫千佛像孝昌元年 八月 十二日」이라는 것이다.

㉔ 松原三郎 「千佛像考」 *美術史* 四八, 一九六三, 참조.

㉕ 이 塑造像에 대해서는 報告書가 간행된다면 필자 나름대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㉖ 奏弘變 「癸酉銘 三尊千佛碑像에 대하여」 *歷史學報* 一七·一八合輯, 一九六二, 참조.

㉗ 우리나라 寺刹에는 千佛殿, 三千佛殿같은 건물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千佛像 造成의 盛行을 잘 알 수 있다.

㉘ 陽原王은 五四五년에서 五五八년까지 治世했는데 이보다 약간 앞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불상이 조성된 것은 대개 陽原王시대 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이 佛像을 調査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국립중앙박물관 당국에 감사사를 드린다.